



박사장 “힘차게 구호 세 번 외치고 해산하자” 노조, 출근저지 투쟁 계속

박정찬 사장이 26일 자신의 출근 저지를 위해 오전 일찍부터 사장실 앞 복도에서 모여 있던 연합뉴스 조합원에 던진 한 마디다.

박 사장은 “모든 걸 대화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출근저지 투쟁, 나아가 연합뉴스 노조에 대한 박 사장의 인식이 잘 드러난 말이다.

한 조합원은 이에 “사장님의 그런 태도가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조합원 160여명은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사장실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다. 지난주 금요일 박 사장이 평소 출근 시간대보다 한 시간가량 일찍 온 탓에 이날 일찍 모여 출근저지를 위한 준비를 갖췄다.

박 사장은 오전 9시10분께 본사 7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사장실 앞 복도에서 스크럼을 짜고 대기 중인 조합원과 대면했다.

공병설 노조 위원장은 대화로 풀자는 사장의 말에 “터놓고 대화할 수 있게 믿음을 달라”고 맞받았다. 공위원장은 “사태를 좋게 풀 준비가 돼 있다. 정

리할 시간도 드리겠다”고도 했다.

박 사장은 이에 “여러 군데에서 압력 받고 있다. 모든 수모를 받아가며 참고 양보하고 대화하고자 했는데 왜 이러냐”며 호소하기도 했다. 또 “원망하고 억울한 생각도 들지만 직원들을 이해한다. 23년 전 똑같은 입장에 서봤고, 그때도 희생자 없이 깨끗하게 풀었다”고 말했다.

공 위원장은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재차 밝히면서 지금은 출근 저지 투쟁 중이므로 사장이 돌아가길 촉구했다.

박 사장은 “그럼 우리 둘이 나가자”라고 공 위원장의 손을 잡아끌기도 했지만, “진정 대화할 마음이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공 위원장의 말에 결국 발길을 돌려 1층으로 내려갔다.

연합뉴스 노조는 박 사장의 출근 저지를 마친 뒤 8층 회의실에서 전체 모임을 하고 파업조 단위로 거리 선전전을 벌였다.

노조 “우리는 ‘가짜 대화’는 안 한다”

※노조는 지난 24일 대의원-쟁의대책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박정찬 사장의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 뒤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노조는 박 사장에게 분명한 사퇴 의지가 없음을 지적하고 더 진전된 안을 촉구했는데도 사측이 이를 무시한 채 노조를 약의적으로 비방하자 이날 다시 한 번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주말을 틈 타 각개격파 식으로 조합원들을 회유하고 협박하지 말 것을 사측에 경고했다.

아울러 박 사장이 퇴진에 대한 의사 표명을 확실히 한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사측이 중요성을 강조하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최소한의 필수인력을 한시적으로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사측은 그러나 핵안보회의 개막 전날인 25일까지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음은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나온 노조 입장이다.

23년 만의 파업, 진짜 대화로 풀겠습니다

노조는 현 사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전 사원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연합뉴스 바로세우기를 위해 23년 만에 파업 투쟁에 나섰지만 조속한 사태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지하고 성실한 대화를 위한 여건이 된다면 본격적인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측의 최근 행태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측은 23일 사내게시판에 성기준 전무 명의로 올린 글에서 노조의 대화 의지를 의심했습니다.

노조는 박정찬 사장의 21일 제안에 분명한 사퇴 의지가 없는 점을 지적하고 더 진전된 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는데도, 성 전무는 이를 무시한 채 노조가 일방적 주장만 고집하며 대화의 손길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성 전무는 또 ‘어렵고도 고통스러운 절차’란 표현으

로 조합원들을 사실상 협박했습니다.

사장의 제안 가운데 특별위원회 협의가 결렬될 경우 실시한다는 불신임투표 원칙을 특위에서 논의하는 자기모순도 드러났습니다.

사측은 주말을 틈 타 조합원들에게 각개격파 식으로 접근해 회유와 협박, 분열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파업 투쟁과 함께 대화를 통한 해결의 희망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노조는 대승적 차원에서 핵안보정상회의에 최소한의 필수인력을 한시적으로 투입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음을 밝힙니다.

단, 성 전무 말대로 박 사장이 연합뉴스의 미래를 위해 어렵게 결심한 제안을 좀 더 명확히 밝히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미로찾기 같은 복잡하고 모호한 수사가 아니라 명료하고 확실한 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퇴진에 대한 확실한 의사 표명, 최대한 짧은 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조는 흔들림 없는 대으로 파업 투쟁을 이어가되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지역본부 2박3일 상경투쟁 '활활'

※연합뉴스 노조가 21일 주주총회를 겨냥해 박 사장 연임 저지를 위한 전 조합원 집결투쟁을 벌였다. 이날 투쟁에 지방취재본부 조합원 90여명 중 70여명이 참여해 뜨거운 투쟁의지를 보였다. 먼 지역에서 올라온 지방조합원 중 일부는 서울에서 숙박하기도 했다. 당시 상경투쟁을 벌였던 지방조합원들의 면면을 정리했다.

노조사무실·수송장에 목으며 '1인투쟁'

0...제주취재본부에서는 '나홀로 조합원'인 김호천 조합원이 혈혈단신(子子單身)으로 상경해 21일부터 23일까지 2박3일간 주총 총력투쟁에 동참했다.

21일 오전 7시 비행기로 상경한 김 조합원은 오전 8시를 조금 넘겨 회사 노조사무실에 도착, 집회 등 각종 행사에 참여했다.

첫날 저녁 노조가 마련한 뒤풀이에 서 동기들과 술 한잔을 한 김 조합원은 모임 후 본사 6층 노조사무실에서 쪽잠을 청했다.

김 조합원은 "새벽 1시에 노조 사무실에 올라왔는데 문은 열려 있고 아무도 없어서 사무실에서 잤다"며 "감기에 걸린 상태였는데 춥지는 않았지만 건조해서 자는 데 혼났다"고 말했다.

김 조합원은 두번째 숙소는 추억의 '수송장'이었다. 김 조합원은 하루 일정을 마치고 사진부원들과 저녁을 함께하고서 옛 사옥 근처의 이곳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김 조합원은 23일 노조가 진행한 일정에 빠짐없이 참여한 뒤 오후 3시 비행기로 제주로 돌아갔다. 김 조합원의 2박3일간 상경투쟁은 '성실한 투쟁'이

어떤 것인지 몸소 보여줘 동료에게 귀감이 됐다.

파업 전보다 더 '빡센' 하루 일과

0...부산취재본부와 충북취재본부에서는 주주총회가 열렸던 21일 상경투쟁을 위해 아침 기차와 고속버스를 타려고 이른 새벽부터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했다. 이들이 지방본부와 서울을 오가며 하루에 투쟁하는 시간은 대략 17시간에 달한다.

부산취재본부 조합원 5명은 지난 21일 오전 7시 기차를 타고 회사에 도착해 투쟁에 참여했다.

이들 중 일부 조합원은 당일 돌아갈려고 했으나 오후에 갑작스럽게 사장의 제의가 나오는 바람에 충동적으로(?) 1박을 결정했다.

서울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한 조합원들은 새벽까지 회사의 앞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인 뒤 회사 근처 모텔에서 불편하게 잠을 청해야 했다. 부산본부 조합원들은 22일 오전 사장출근저지 투쟁에 참여하고서 부산으로 돌아갔다.

충북취재본부도 조합원 5명은 '당일치기' 투쟁으로 고된 하루를 보냈다.

21일 오전 7시30분에 청주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투쟁에 동참한 뒤 오후 10시에 청주행 고속버스에 탑승, 자정이 돼서야 귀가했다.

"숙소는 같이 잡았는데..."

0...전북취재본부 조합원들은 매번 서울 상경투쟁 때마다 조합원 6명이 빠짐없이 참석해 뜨거운 투쟁 열기를 온몸으로 보여줬다.

이번 주총 총력투쟁에서도 조합원들은 고속버스로 3시30분이나 걸려 상경했음에도 지친 기색 없이 파업투

쟁에 동참했다. 저녁이 되자 조합원들은 지난번 총파업 출정식 때 겪은 '숙소 사건'의 아픈 기억이 떠올랐다.

당시 조합원 중 한 명이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신 뒤 예약한 숙소로 먼저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자는 바람에 나머지 조합원들은 눈물을 머금고 야밤에 다른 숙박시설을 잡아야 했다.

이번 상경 투쟁 때엔 과거 전북취재본부장을 역임했던 한 선배가 "후배들이 고생한다"며 '서울유스호스텔'에 방을 잡아줘 따뜻하고 편안하게 밤을 보낼 수 있었다는 '훈훈한' 소식이다.

주주총회 전후로 노조가입 잇따라

0...상경투쟁 기간 경기취재본부와 경기북부취재본부에 사원 3명이 노조에 가입해 파업투쟁에 힘을 실어줬다.

20일과 21일 신규 조합원이 된 경기북부취재본부 우영식·김도운 사원과 21일 노조에 가입한 경기취재본부 이우성 사원이 그 주인공.

노조 가입 직후 서울에서 진행된 주총 총력 투쟁에 참여한 우영식 조합원은 "빨리 정리돼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노조에 가입했다"며 "(나도) 같이 하고 동참하는 게 파업을 빨리 끝낼 방안이 아닌가 싶었다"고 노조 가입 계기를 설명했다.

우 조합원은 "(집회에 참여하니) 나름대로 기사 쓰면서 부담스러웠던 점도 토로할 수 있었으며, 파업에 동참하는 선후배들 다수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지하철은 투쟁 열기를 싣고

0...대다수 지방취재본부 조합원들이 기차와 고속버스, 심지어 비행기까지 타고 투쟁하고 있지만 인천취재본부와 강원취재본부 조합원들은 지하철을 주로 이용했다.

인천취재본부 손현규 조합원은 매일 오전 7~8시 집을 나서 지하철역으로 향한다. 지하철로 2시간이면 회사 인근 을지로입구역에 도착하기 때문.

출근 시간과 겹쳐 약간 혼잡하긴 하지만 손 조합원은 "이 정도면 다닐만하다"라며 깨끗하게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

강원취재본부는 경춘선 덕분에 상경투쟁이 용이해졌다.

경춘선 급행 전철과 거의 비슷한 곳에 정차하는 ITX청춘 열차를 타면 서울-춘천은 한 시간 거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1일 주주총회 상경 투쟁에 참여하려 아침에 집을 나선 강은나래 조합원은 이날 저녁 뒤풀이 술자리까지 참석했는데도 다음날이 되기 전 춘천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교통의 발달로 서울 인근 지방취재본부 조합원들의 투쟁 열기가 더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출퇴근 '애매~한 거리'는 택시투쟁

0...지역본부 중에서 서울과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경기취재본부는 회사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도 불구하고 주총 총력 투쟁 기간에 '택시 투쟁'을 벌여야 했다. 썩 멀지 않은 집을 놔두고 서울에 묵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집에 갈 차편도 마땅치 않아서다.

주주총회가 열린 21일 오전 본사에 집결한 조합원 7명 중 4명은 하루 일정과 뒤풀이를 모두 마친 22일 오전 1시께 2만원이 훌쩍 넘는 택시비를 지불하며 경기 수원시의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거리에 차가 없는 새벽이라 '총알'이 달렸음에도 서울 본사에서 수원까지 걸리는 시간은 무려 30~40분. 그러나 이들은 늦은 시간임에도 수원에 도착해 한 잔 더 하며 투쟁 의지를 굳게 다졌다고 전해지고 있다.

"틀을 깨는 시간, 파업"

※ 파업으로 조합원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지만, 특히 더 힘든 이들이 있다. 이른바 '파업 부부'다. 연합뉴스를 비롯해 KBS, MBC, YTN, 국민일보 등 여러 언론사가 동시에 파업하는 탓에 이곳에 다니는 배우자를 둔 조합원은 부부가 파업에 참가하게 됐다. 이들은 가운데 강원취재본부 이재현 조합원의 이야기를 이 조합원 배우자인 KBS 김문영 기자의 입을 통해 듣는다.

"부부가 동시에 파업 중이세요?", "어머나, 육아비 때문에 걱정 많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남들에게는 생소한 일들이

우리 부부에게는 전혀 웃을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란 옛 고사처럼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봄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KBS 새 노조 조합원입니다. 파업에 돌입한 지 오늘(20일)로 벌써 3주차, 남편은 파업 6일째.

파업 이후 때론 늦잠을 자기도 하고, 그동안 친정에 맡겨 키우던 딸아이를 데려와 오랜만에 셋이서 오붓한 생활도 영위하고, 그동안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여유를 부리고 있지만, 마음이 편해지기보다 조금해지는 것은 왜 일까요?

월말이 다가오면서 엄습하는 각종

공과금과 대출금 이자, 이제 갓 돌을 지난 딸 유민이가 커가면서 불어나는 육아비용 등등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인가?

그보다는 우리 부부가 한 번도 사회가 정해준 틀에서 벗어난(?) 적 없는 뻣뻣한 삶을 살아왔다는 방증일지도 모릅니다.

파업이라는 거창한 문구가 아닐지 언정, 악순환의 고리만큼은 끊어보자 아니면 멈춰 세워보자는 생각이 어느덧 자리 잡으면서 파업은 일상으로 찾아왔습니다.

기자 부부였기에 더 큰 책무를 느꼈는지 모릅니다. 혼자였으면 외로울고 민이 함께여서 힘이 됐습니다.

파업에 참여하면서, 사회를 보는 시야가 넓어진 것 같습니다.

처음엔 에너지를 어디에 쏟을지 몰라 우왕좌왕했지만 지금은 쉽게 흥분하는 일도 낙담하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기자이기 이전에 의식 있는 시민으로 살아갈 힘을 얻으면서 파업은 더는 급진주의자들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파업이 끝나면 이제는 틀에 박힌 기사는 쓰지 않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우리 아이가 커가는 동안 얼마만큼의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덤수룩해져 가는 남편이 깨끗하게 면도하고 웃으며 함께 출근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 딸 유민이가 공정보도를 시청하고, 바른 뉴스를 볼 수 있는 그날까지.

"공.정.보.도. 쟁취~투쟁!"